

고물가 속 ‘할인 경쟁’...장바구니 부담 낮춘다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신선식품을 앞세운 할인 행사에 나선다.

합리적인 가격을 내세운 PB 상품부터 한우와 과일, 채소 등 필수 먹거리까지 할인 품목을 확대해 소비자 수요를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15일부터 28일까지 ‘PB페스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홈플러스도 오는 21일까지 마이홈플러스 회원을 대상으로 ‘멤버튼가 is BACK’ 행사를 열고 주요 먹거리와 생활용품에 할인 판매한다.

이번 행사는 고물가 속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상품과 회원 전용 혜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롯데마트는 마스터 PB ‘오늘좋은’과 가정간편식(HMR) 브랜드 ‘요리하다’의 인기 상품 및 신상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올해 1~9월 롯데마트의 전체 PB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특히 5000원 이하 PB 상품 매출은 37% 늘어나

유통업체, PB 상품부터 필수 먹거리까지 품목 확대
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초저가 상품·세프 협업 강화

며 가격 부담을 낮춘 상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5000원 이하 초가성비 PB 상품 200개 품목을 선보인다. 가공우유와 과자 등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저렴한 상품을 구성했으며, 일부 인기 스낵은 추가 증정 행사를 통해 구매 혜택을 높였다.

올해 판매 호조를 보인 대표 상품의 물량도 확대한다.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와 숨결통식빵, 명품 100% 피넛버터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중심으로 준비 물량을 늘려 행사 기간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스타 세프 협업 상품도 강화한다.

정지선·정호영 세프의 레시피를 적용한 탕수육과 껌바로우, 감자우동 등 신상품을 선보인다. ‘요리하다 스타 세프 에디션’은

일정 수량 이상 구매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양념육 상품도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한다.

가정간편식에 집중됐던 협업 상품군은 스낵으로 확대한다. 정지선 세프의 중식 레시피를 접목한 중화스낵 3종을 출시해 상품 차별화를 꾀한다.

생활용품도 할인 대상이다. 리빙박스과 지퍼백, 위생백 등 수납·주방용품부터 대용량 화장지와 마유티슈 등 제지류까지 할인 폭을 넓혀 식품과 생필품을 함께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공략한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페이백 이벤트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오늘좋은’ 또는 ‘요리하다’

상품을 구매한 뒤 영수증과 장바구니 인증 사진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매일 1명에게 영수증 금액에



고물가에 따른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체가 자체브랜드(PB) 상품과 신선식품을 앞세운 할인 행사에 나선 가운데 롯데마트는 15일부터 28일까지 ‘PB페스타’를 진행한다.

해당하는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며, 2등 당첨자에게도 롯데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홈플러스는 신선식품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회원 할인 혜택을 강화한다.

오는 17~18일에는 한우 전 품목을 최대 50% 할인한다. 한우 등심을 비롯한 주요

부위의 가격 부담을 낮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수요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과일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사과 전 품목에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햇 제주 밀감 과 타이벡 밀감 등 제철 과일을 특가로 선보인다. 계란 등 주요 식재료도 할인 대상에 포함됐다.

채소류는 15~18일 청경채와 시금치, 알배기 배추, 오이, 양파, 감자, 상추, 부추, 표고버섯 등 10개 품목을 반값에 판매한다. 생연어 구이용과 횡감용 제품도 할인해 신선식품 구매 부담을 낮춘다.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델리 상품과 가공식품도 할인 판매한다. 통닭과 모듬초밥, 닭강정 등 즉석조리식품을 비롯해 어묵탕과 치킨넛, 커피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일부 상품은 수량을 한정해 판매한다.

이 밖에도 즉석밥과 과자, 삼파, 바다위시 등 다양한 상품을 대상으로 1+1 행사를 진행한다. 생활용품과 제지류 등도 할인 품목에 포함해 식품부터 일상용품까지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고물가 속 소비자들이 가격과 할인 혜택을 꼼꼼히 비교하는 만큼, 단순한 가격 인하를 넘어 PB 상품의 경쟁력과 차별화된 상품 구성, 멤버십 혜택을 결합한 마케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환경보호 앞장”...광주신세계 임직원 봉사단 ‘무등산 플로깅’

18일 ‘산의 날’ 앞두고 봉사
원호사 탐방로 쓰레기 수거

광주신세계가 산의 날을 앞두고 지역 대표 자연자산인 무등산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광주신세계는 임직원 봉사단이 14일 무등산 원호사 탐방로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플로깅은 걷거나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으로, 임직원들은 탐방로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환경 보전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 봉투를 활용해 환경 부담을 줄이는 데도 신경을 썼다.

이번 봉사활동은 오는 18일 산의 날을 앞두고 마련됐다. 산의 날은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02년 제정됐다.



광주신세계 임직원 봉사단이 14일 무등산 원호사 탐방로 일대에서 플로깅 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신세계는 등산객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무등산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 자연자산의 가치를 되새기고자 이번 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신세계는 앞서 2023년 10월에도 무등산 정상 개방을 기념해 원호사 일대에서 임직원 참여형 플로깅을 실시했다.

무등산뿐 아니라 도심 속 하천과 녹지 공간을 가꾸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광주전면에서 휴공 단지기 활동을 진행했다.

향토에 효모와 유산균 등 유익한 미생물을 섞어 만든 흙공을 활용해 하천

수질 개선과 악취 저감에 힘을 보탰다.

지난 4월에는 남광주역 인근 푸른길에서 임직원과 시민들이 함께 가드닝 활동을 펼쳤다. 도심 생태계 복원을 위해 수선화와 데이지 등 곤충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식물 500여 본을 심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2027년 세계철강협회 총회 서울서 열린다

장인화 철강협회장 유치 이끌어

2027년 세계철강협회 정기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세계철강협회 총회에서 2027년 총회 개최지로 대한민국 서울을 공식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후 22년 만에 다시 서울에서 세계철강협회 총회가 열리게 됐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세계철강협회 총회는 글로벌 철강사 CEO들이 모여 업계 현안을 논의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세계철강협회 서울총회가 유치된 것은 장인화 한국철강협회장(포스코그룹 회장)이 서울 총회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해 회원사를 대상으로 서울총회에 적극 참석해 줄 것을 제언했다.

또 뉴델리 총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저탄소 제품 가이드라인 개발과 탄소배출량 할당 방식의 국제 표준화 등 핵심 현안



장인화 회장과 사전 진달 JSW그룹 회장.

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등 활약을 보였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지난 2022년 발생한 힌남노 태풍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극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민관 협력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서울총회 유치는 한국 철강산업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확인한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기준 세계 6위 조강 생산국(6223만t)이며 1인당 철강 소비량은 세계 1위(844kg)이다.

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